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이 삶의 무의미성 및 목적성 지각과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

권영실 이혜영 김승철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 즉,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신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사회적 배제)을 유도·조작하는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생 남녀 71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을 유도한 후 심리적 차원으로 삶의 무의미성과 목적성 지각을, 신체적 차원으로 고통감내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짐이 되는 느낌 및 좌절된 소속감(사회적 배제)은 타당하게 조작되었다. 둘째, 지각된 삶의 무의미성 및 목적성에서 짐이 되는 느낌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좌절된 소속감의 주효과,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고통감내력에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끝으로 대인관계 욕구가 좌절된 개인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자기패배적 행동(self-defeating behaviors)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짐이 되는 느낌, 좌절된 소속감(사회적 배제), 삶의 무의미성 및 목적성, 신체적 고통감내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 hyunmh@cau.ac.kr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언제나 사회 안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욕구는 인간의 존재감과 가치감의 근간이 되고, 이것이 좌절된 개인은 삶의 의미와 목적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Vancouver, Thompson, & Williams, 2001). Murray(1938)는 자율, 보살핌, 놀이, 이해, 지배, 성취 등을 비롯한 인간의 20가지 욕구 중 타인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 경향인 '소속에의 욕구'를 상위 체계에 두고 있다. Shneidman(1996) 역시 인간에게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동반하는 욕구로 좌절된 사랑, 단절된 관계, 공격받은 자아상, 좌절된 지배욕과 관련된 과도한 분노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욕구를 제시했다. 최근 Joiner(2009)는 인간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대인관계 욕구를 소속감과 효능감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욕구의 좌절을 각각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대인관계 욕구가 좌절될 때 개인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에 대한 가치감에 타격을 입는다고 보았다.

소속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인 동인'이다. 이러한 소속감의 좌절은 개인의 존재감을 손상시키고 (Williams, 1997), 건강, 적응,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좌절된 소속감'이란 의미 있는 관계 내에서 유대감의 좌절을 느끼는 것으로 친구나 가족, 그리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 및 단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일컫는다(Joiner, 2009). 소속감이 좌절되면 사람들은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고 (Eisenberger, Lieberman, & Williams, 2003), 더 나아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식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좌절된 소속감을 느낀 개인은 극한의 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전반적으로 낮게 지각하게 된다(Baumeister, 1991; DeWall & Baumeister, 2006; Williams, 1997, 2002). 실제로 공 던지기 과제를 하면서 과제에서 배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의 의미를 낮게 보고했고(Zadro, Williams, & Richardson, 2004), 컴퓨터 게임으로 제작된 공 던지기 과제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도 동일하였다 (Zadro, Boland, & Richardson, 2006). 또한 미래에 대한 피드백으로 소속감을 좌절시켰을 때 역시 삶의 의미가 없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Stillman & Baumeister, 2009).

한편 '짐이 되는 느낌'은 대인관계 안에서 효능감이 좌절된 상태를 말하며,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의미 있는 관계 안에서 자신을 쓸모없고 짐이 되는 존재로 느끼는 주관적 지각이다(Joiner, 2009). 스스로 유능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느낌은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관계 속에서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면 생명력을 고갈시킨다(Seligman & Maier, 1967).

짐이 되는 느낌은 대인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효능감의 좌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된다고 인식할 때 느끼는 부정적 정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Van Orden, Witte, Gordon, Bender, & Joiner, 2008). 이러한 인식과 정서는 개인에게 매우 치명적이어서(Joiner et al., 2009) 삶의 의미나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의미 있는 관계 내에서 자신을 짐과 같은 무능한 존재로 보는 개인은 자기 가치감이 감소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감이 손상을 받게 된다 (Baumeister, 1991; Williams, 1997, 2002). 삶의

의미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므로 (Stillman, & Baumeister, 2009), 자신을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은 삶의 의미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성과 같은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신체적 측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이 고통을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고통감내력(Pain Tolerance)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거절에 따른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은 관련성이 높으나 두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Bernstein, & Claypool, 2012; Eisenberger & Lieberman, 2004; Waesche, 2012). Eisenberger 등(2003)은 사회적 거절을 당하면 고통에 민감해지면서 고통감내력은 감소한다고 주장한 반면, Dwall과 Baumeister(2006)는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개인은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무감각(numbness)과 분리(detachment)라는 기제를 통하여 정서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무감각하게 반응하여 신체적 고통에도 둔감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에 대해 Bernstein과 Claypool(2012)는 거절의 심각도에 따라 신체적 고통감내력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했다. 심각한 거절은 신체적 고통에 무감각하게 하나 비교적 덜 심각한 거절은 오히려 신체적 고통체계를 민감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 그리고 두 요소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고통감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과 신체적 고통체계 간에 어떠한 매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좌절된 소속감과 달리 짐이 되는 느낌과 고통감내력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지만 다른 고통감내력 연구를 보면 짐이 되는 느낌과 고통감내력 사이에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Hooley, Hooley, Ho, Slater, & Lockshin(2010)은 과거에 자해를 행한 사람의 고통감내력이 유의하게 높았고 부정적인 자기지각 수준도 높았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자기지각이 고통감내력의 유의한 예측변인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짐이 되는 느낌 역시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주변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의 저하 및 부정적인 자기지각과 관련이 깊다(Kowal, Wilson, McWilliams, Pélouquin, & Duong, 2012).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짐이 되는 느낌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자기비난과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고통감내력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한 관계에서의 소속감의 좌절과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짐이 되는 느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개념이면서도 구별되는 구성개념이다(Joiner, 2009; Van Orden, Cukrowicz, Witte, & Joiner, 2012).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자기 존재감과 가치감을 손상시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좌절된 소속감은 자신을 배제시킨 대상을 향한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는 반면(Buckley, Wrinkel, & Leary, 2004; Dwall, Twenge, Gitter, & Baumeister, 2009;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짐이 되는 느낌은 자신을 향한 공격성이 유발되어 자신을 비난하게 할 수 있다(Joiner, 2009; Van Orden et al., 2010). 실제 많은 연구에서 좌

절된 소속감에 비해 짐이 되는 느낌이 자기과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김성연, 2013; 이동희, 2013; 하정미, 설연옥, 좌문경, 2010; Van Orden et al., 2008). 따라서 대인관계 욕구의 주요한 한 축인 짐이 되는 느낌이 야기하는 영향을 인과론적으로 밝히고 좌절된 소속감의 영향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두 가지 요소는 다양한 자기패배적 행동(self-defeating behavior)을 일으키는 주요 예측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증가시키는 기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성근혜, 2015; Joiner, 2009; Joiner, Ribeiro, & Silva, 2012; Ribeiro & Joiner, 2009; 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자기패배적 행동은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을 실패로 몰고 가고 자신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가는 행동 양상이다(Baumeister, 1997; Baumeister & Scher, 1988). 프로이트는 인간은 생의 본능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선천적인 자기-파괴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책감과 정서적 고통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 고통 받고 실패하는 것을 원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패배적 행동은 건강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과제를 지연하는 손상된 자기 조절 행동에서부터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다양한 위험 행동, 자해,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Twenge et al., 2002). 애착 이론에 따르면, 주요한 대인관계의 좌절로 인한 정서적 고통은 절망과 자포자기의 느낌을 야기하고 이는 다양한 자기패배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Stroebe, Stroebe, Abakoumkin, & Schut, 1996). 따라서, 개인의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로 인해 삶의 무의미성이 높게 인식되고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커지는 것은 다양한 자기패배적 행동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이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신체적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두 가지 대인 좌절의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즉,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이 심리적 차원인 생의 무의미성 및 목적성 지각에, 신체적 차원인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은 생의 무의미성을 높이고 목적의식을 낮출 것이다. 또한 신체적 고통감내력을 높여 자기 패배 행동의 위험을 높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효능감과 유대감의 좌절이 다양한 자기패배적 행동 위험을 증가시키는 매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참가를 희망한 서울의 남녀 대학생 80명이었다. 이들 중 DSM-5의 정신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거나 우울 고집단, 최근 6개월 자살 생각 및 과거 자살 시도 경험자, 집단 따돌림 경험자, 신체 및 정신 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 중인 자를 포함하여 9명을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71명(남 35명, 여 36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46($SD=2.24$)세였다.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는 각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다.

측정도구

우울증상의 심각도.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여 최근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였다(Cho & Kim, 1998). 한국판 CES-D는 총 20문항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와 같은 우울 증상을 경험한 날의 빈도를 기준으로 '1일 이하', '1-2일', '3-4일', '5일 이상'으로 평정한다. 0에서 15점은 '우울 증상 없음', 16에서 24점은 '경도 우울', 25점 이상은 '중증도 우울'로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는 25점 이상인 사람은 배제하였다. 최종 실험 참가자의 77.5%(55명)는 '우울 증상 없음', 22.5%(16명)는 '경도 우울'에 해당하였다.

기분. 현재 느끼는 긍정 부정 기분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를 사용하였다(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본 연구에서는 긍정 6문항, 부정 6문항을 선정하여 7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기저선 상태의 긍정 기분의 평균은 4.19(±.97)점이며 부정 기분은 2.28(±.85)점이었다.

고통 역치(Pain Threshold)와 고통감내력(Pain Tolerance). 참가자의 고통 역치 수준과 고통감내력은 아이엠 텍에서 개발한 통각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작업치료에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고통 역치는 집단간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였고, 고통감내력은 종속측정치로서 사용하기 위해 측정하였다.

측정 절차는 기존 연구(Franklin, Aaron, Arthur, Shorkey, & Prinstein, 2012)를 참고하여 참가자의 비우세손 중지(중지)에 점진적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측정하였다. 고통 역치는 아픔을 처음 느꼈을 때 가해진 압력값으로서(Bernstein, & Claypool, 2012; Dewall, & Baumeister, 2006), 처음으로 아프다고 느꼈을 때 가해진 압력 수준(kg)으로 정의하였다. 고통감내력은 아픔을 느낀 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아픔이 느껴졌을 때를 말하게 하여 '최대한 감내할 수 있는 아픔의 수준'에서 '처음으로 아픔을 느낀 통증 역치 수준'의 차이 값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작 점검을 위해 각각의 단계에서 느낀 주관적 고통을 0(전혀 아프지 않았음)에서 5(보통), 10(극심한 아픔)으로 예시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지각된 삶의 무의미성 및 목적성(Perceived Sense of No Meaning & Purpose about life).

현재 지각된 삶의 무의미성을 측정하기 위해 Kundendorf와 McGuire(1994)의 No Meaning 척도(18문항)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삶의 목적성은 Purpose 척도(4문항)와 Goal 척도(3문항)를 번안하여 측정하였다(Krause, 2004; Stillman et al., 2009). 척도의 번안과정에서 임상심리 전공 석·박사 과정에 있는 2인이 1차 번역한 후, 이중 언어자 1명과 임상심리전문가 1명이 2차 검토하였다. 각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무의미성 척도가 .86, 목적성은 .90로 나타났다.

절차

짐이 되는 느낌 및 좌절된 소속감 조작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패러다임(Bushman, Bonacci, Van Dijk, & Baumeister, 2003; Vorauer, Cameron, Holmes, & Pearce, 2003; Williams & Jarvis, 2006)을 참고하여 짐이 되는 느낌을 조작하는 컴퓨터용 프로그램과 좌절된 소속감(사회적 배제) 패러다임을 구성하였다.

사전에 참가자에게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라고 안내하였다. 당류가 포함된 음식은 고통감내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24시간 전부터 약물(담배 제외)을 금지하게 하였고, 8시간 전부터 당류, 4시간 전부터 음료 및 무당류 음식 섭취를 금지하였다(Kanarek & Carrington, 2004; Mercer & Holder, 1997). 짐이 되는 느낌 유무와 좌절된 소속감(사회적 배제) 유무에 따라 네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참여자를 각 조건에 무선 배정하였다. 연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수행 동기를 높이기 위해 수행 결과에 따라 연구비는 차등 지급된다고 공지하였다.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분을 평정하고 통각 측정 절차와 안전성에 대해 안내하고 고통 역치 수준을 측정하였다.

참가자가 도착하면 컴퓨터가 설치된 연구실로 안내한 후 게임 규칙을 설명하고 연습 게임을 하게 하였다. 각자 게임 아이디어를 정하여 3명의 가상 참가자와 참가자 모두 'ready'가 되면 본 게임을 시작하였다.

'짐이 되는 느낌'은 컴퓨터용 게임으로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2명이 한 팀이 되어 두 팀이 경쟁하는 상황으로 고안하였다. 차등 지급 하는 실험 참가비를 획득하기 위해 상대팀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의 과실로 지게 되어 같은 팀 파트너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실제로는 참가자 혼자 수행을 하지만 다른 공간에 나머지 3명이 동시에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참가자에게 알려주었다. 게임 화면에서 같은 팀끼리 서로의 플레이를 볼 수 있게 고안되었고 서로 정해진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상의 상대팀과 참가자 팀의 득점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짐이 되는 느낌'을 조작하기 위해 참가자는 총 14번의 시행 중 8번을 실패하고 같은 팀 파트너는 14번 중 6번을 실패하여 경쟁팀에게 2점 차이로 지게 하였다. 통제 상황에서는 참가자와 같은 팀 파트너가 똑같이 14번의 시행 중 7번 실패하여 상대팀과 동점으로 게임이 종료되었다.

이어서 두 명의 공모자가 마주 보고 기다리고 있는 연구실로 참가자를 안내하였다. 좌절된 소속감을 조작하기 위해 면대면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한 후, 참가자 혼자만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고안하였다. 기본적인 유대감 형성을 위해 참여자와 한명의 동성 공모자, 한 명의 이성 공모자가 협동 게임을 진행하기 전, 각 팀원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별칭, 조이름, 서로에 대한 관심사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주고 실험자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들어온 실험자가 협동 게임 규칙을 설명하려하자 동성 공모자가 실험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잠시 후 들어온 실험자가

이성 공모자를 불러 낸 후 혼자 난감한 기색으로 들어와 피드백을 참가자에게 전달했다.

소속감 좌절 조작 피드백은 먼저 동성 공모자를 여기에서 만나기 이전에 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본 뒤, 동성 공모자가 참가자와 같은 팀이 되어 협동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달하였다. 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전해들은 이성 공모자도 동성 공모자와 같은 팀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 와서 더 이상 협동게임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성 공모자가 참가자와 같은 팀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불편해서라고 들었다며 모호하게 전달하여 '소속감의 좌절'을 유도하였다. 통제 상황에서는 동성 공모자가 노트북을 강의실에 두고 와 급히 찾으러 가야하기 때문에 협동게임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다.

각각 조건은 15분 동안 진행되며 참가자가 다음 진행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기 전에 조작 점검 및 기분 평정을 실시하였다.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사회적 배제)을 조작한 후 조작 점검을 하기 위해 PANAS 문항(6문항)에 짐이 되는 느낌 관련 3문항, 좌절된 소속감 관련 3문항을 각각 추가하여 두 종류로 구성하여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짐이 되는 느낌 관련 조작 점검 문항은 '내게 실망스러운',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은', '남에게 부담을 주는', 좌절된 소속감 관련 문항은 '내가 소외된 것 같은', '소속감을 느끼는(역채점 문항)', '타인과 단절감을 느끼는'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조작 점검 확인을 위한 모든 문항의 평정값은 척도의 평균값($M=4$)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 대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평균 차가 유의하였다.

이후 순서 효과를 통제하여 지각된 무의미성 및 목적성 설문지와 고통감내력을 측정하였다. 연구 종료 후 연구의 목적을 디브리핑하고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작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수행하였다. 셋째,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따른 무의미성 및 목적성 지각과 고통감내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2-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표 1과 같이 실험 전 성별, 연령, 사전 기분 상태, 고통 역치 수준에서 각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사전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짐이 되는 느낌 및 좌절된 소속감이 삶의 무의미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따른 현재 삶에 대한 무의미성 지각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지각된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F(1, 67) = 8.43, p < .01$, 좌절된 소속감의 주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F(1, 67) = 1.36, p = .24$. 또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67) = .12, p = .73$. 즉, 짐이 되는 느낌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현재 지각된 삶에 대한 무의미성이 높았으나 좌절된 소속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지각된 삶의 무의미성은 차이가 없었다.

짐이 되는 느낌 및 좌절된 소속감이 삶의 목적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따른 현재

지각된 삶의 목적성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그 결과 삶의 목적성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1, 67) = 5.38, p < .05$. 좌절된 소속감의 주효과, $F(1, 67) = .00, p = .96$, 와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67) = 2.05, p = .15$. 즉, 짐이 되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현재 지각된 삶의 목적성이 낮았으나 지각된 삶의 목적성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실험 참가자의 특성과 사전 동질성 검증(N = 71)

	짐이 되는 느낌 유		짐이 되는 느낌 무		χ^2 / F
	좌절된 소속감 유	좌절된 소속감 무	좌절된 소속감 유	좌절된 소속감 무	
성별(남/여)	9/9	9/10	9/8	9/8	.156
연령	22.67(2.24)	22.05(2.43)	22.35(1.86)	22.82(2.45)	.411
기분(긍정)	4.18(.86)	4.05(1.16)	4.15(1.06)	4.39(.77)	.367
기분(부정)	2.20(.57)	2.12(.87)	2.37(1.04)	2.45(.88)	.559
고통역치	3.38(.64)	3.12(.89)	3.59(.72)	3.45(.86)	1.157

all *n.s.*

표 2.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따른 지각된 삶의 무의미성 평균(±표준편차)

	좌절된 소속감		
		유(N=35)	무(N=36)
짐이 되는 느낌	유(N=37)	28.72(6.60)	31.00(7.28)
	무(N=34)	24.88(5.33)	26.11(5.73)

표 3. 지각된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짐이 되는 느낌(A)	336.87	1	336.87	8.43**
좌절된 소속감(B)	54.64	1	54.64	1.36
(A) × (B)	4.81	1	4.81	.12
오차	2677.14	67	39.95	

** $p < .01$.

짐이 되는 느낌 및 좌절된 소속감이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따른 고통감내력의 평균과 변량분석 결과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고통감내력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67) = 1.54, p = .21$, 좌절된 소속감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67) = .23, p = .62$. 그러나 고통감내력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호작용은 유의

하였다, $F(1, 67) = .12, p < .05$.

고통감내력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로 표현하고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좌절된 소속감이 없는 경우 짐이 되는 느낌 유무에 따른 고통감내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F(1, 34) = 5.62, p < .05$, 좌절된 소속감이 있는 경우 짐이 되는 느낌에 따른 고통감내력의 차이는 없었다, $F(1, 33) = .27, p = .60$.

표 4.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따른 지각된 삶의 목적성 평균(±표준편차)

		좌절된 소속감	
		유(N=35)	무(N=36)
짐이 되는 느낌	유(N=37)	21.05(3.20)	19.68(4.43)
	무(N=34)	21.88(4.07)	23.17(3.81)

표 5. 지각된 삶의 목적성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짐이 되는 느낌(A)	82.60	1	82.60	5.38*
좌절된 소속감(B)	.02	1	.02	.00
(A) × (B)	31.46	1	31.46	2.05
오차	1027.28	67	15.33	

* $p < .05$

표 6.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따른 고통감내력(kg) 평균(±표준편차)

		좌절된 소속감	
		유(N=35)	무(N=36)
짐이 되는 느낌	유(N=37)	1.54(.86)	2.03(.99)
	무(N=34)	1.69(.85)	1.39(.55)

표 7. 고통감내력(kg)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짐이 되는 느낌(A)	1.08	1	1.08	1.54
좌절된 소속감(B)	.16	1	.16	.23
(A) × (B)	2.83	1	2.83	4.02*
오차	47.27	67	.7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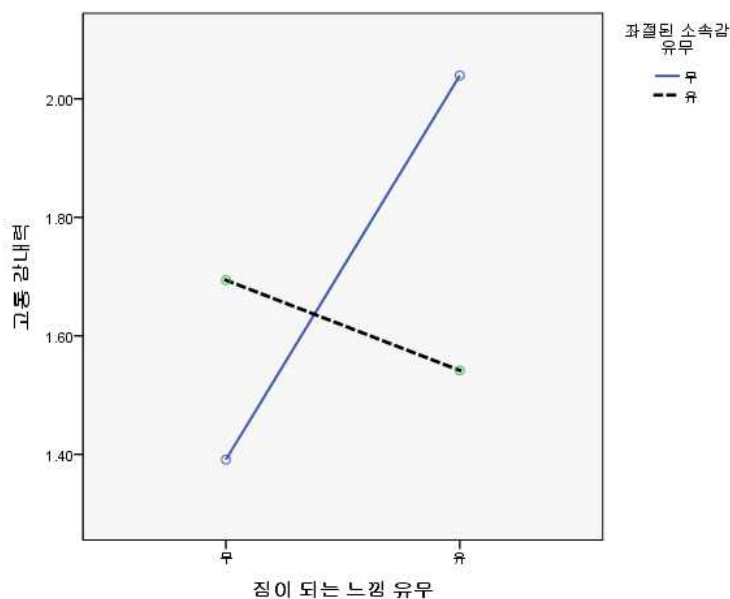


그림 1.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따른 고통감내력(kg)의 차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이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신체적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이 생의 무의미성 및 목적성 지각에, 신체적 차원인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확인해 봄으로써 대인관계 안에서 효능감과 유대감의 좌절이 다양한 자기패배적 행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서울소재 남녀 대학생 71을 대상으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과 차이 경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인 간 인과성을 파악하고자 대인관계 좌절을

유도하는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조작은 타당하게 유도되었다.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삶의 무의미성과 목적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짐이 되는 느낌 집단은 삶의 무의미성을 높게 목적성은 낮게 지각하였다. 반면, 좌절된 소속감은 삶의 무의미성과 목적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호작용 역시 두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당했을 때보다 관계에서 자신이 짐이 된다고 느낄 때 삶을 무의미하게 지각하고 삶의 목적도 낮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Joiner(2009)는 개인이 소속 집단을 실망시킬 경

우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개인의 삶의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으로 한 팀을 만들어 그 관계에서 짐이 되는 느낌을 느끼게 한 것임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 좌절 중 특히 짐이 되는 느낌을 지각하는 것이 삶의 무의미성과 목적성 지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이 더 무의미하다고 지각한다(Stillman et al., 2009). 또한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낮게 지각하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었는데(Baumeister, 1991; Dwall & Baumeister, 2006; Williams, 1997, 2002), 소속감 좌절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각된 삶의 무의미성에서 좌절된 소속감 집단과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성 역시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이한 연구 결과는 실험적 처치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대인간 상호작용 없이 사회적 배제 처치를 시행했다. 그들은 사회적 배제 처치로 참가자가 미래에 주요한 대인관계가 깨지고 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피드백을 주거나(Maner, DeWall, Baumeister, & Schaller, 2007), 온라인(on-line) 상으로 여러 명이 하는 공놀이 게임에서 공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Stillman et al, 2009; Williams & Javis, 2006). 반면,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공모자

와 한 명의 참가자가 한 팀을 이루고 함께 조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공모자가 참가자를 직접적으로 거절했다. 이러한 집단 내의 직접적인 거절이 참여자에게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처치 후에 실행한 기분검증에서도 ‘화가 나는’이라는 정서가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69) = -5.93, p < .001$. 내집단에게 사회적 배제를 당한 사람은 위협(threat)을 느끼고 외집단에게 배제를 당한 사람은 분노(anger)를 느끼게 된다(Mendes, Major, McCoy & Blascovich, 2008). 이를 참고하면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공모자를 내집단이라고 인식하기 전에 그들에게 거절당하게 되어 참여자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나 목적성에 타격을 덜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신체적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통감내력에 대한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좌절된 소속감 없이 짐이 되는 느낌만 처치한 경우는 참가자의 고통감내력이 높아졌으나 좌절된 소속감이 있는 경우 짐이 되는 느낌 유무에 따른 고통감내력의 차이는 없었다.

먼저, 짐이 되는 느낌만 처치된 집단의 고통감내력이 상승한 것은 자기처벌(self-punishment)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명백한 잘못으로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은 자기를 비난하게 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확증해주는 고통에 대하여 감내하는 경향성이 있다(Hooley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짐이 되는 느낌 처치 이후 시행한 조작 점검 문항에서 ‘(내게) 실망스러운’의 점수가 높아진 것을 보았을 때, $t(69) = -3.44, p$

< .01, 짐이 되는 느낌은 자기비난을 매개로 하여 고통감내력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을 함께 처치하였을 때, 짐이 되는 느낌의 유무에 따른 고통감내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참가자의 귀인양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귀인 모호성(attributional ambiguity) 가설에 따르면, 한 사건에 대해 개인이 귀인을 할 때 상황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상황적 요소가 강한 경우 개인적 요소는 영향력이 적으며, 상황적 요소가 모호할 때 개인적 요소의 영향력이 증대된다(Crocker & Major, 1989; Major, Quinton, & Schmader, 2003). 좌절된 소속감의 처치상황에서 개인은 거절당한 원인을 찾으려 하는데, 거절의 원인이 명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내부귀인하고 일부는 상대방과 같은 외부 요소로 귀인하는 등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인양식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짐이 되는 느낌 처치는 결과에 대해 자신의 명백한 잘못으로 귀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상황인 반면에 좌절된 소속감의 처치는 결과에 대해 다양하게 귀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통감내력의 결과가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배제와 고통감내력 간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Dewall & Baumeister, 2006; Eisenberger et al., 2003). 이 또한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Dewall과 Baumeister(2006)는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인해 미래에 주요한 관계에서 혼자 될 것이라는 가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소속감이 좌절된 조작하였다. 이에 참가자는 소속감의 좌절의 원인을

개인 내적 요소인 자신의 성격 탓으로 귀인하였기 때문에 고통감내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팀원의 직접적인 배제로 거절의 심각성은 높았으나 배제한 이유에 대해 '불편하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전달하여 거절당한 원인을 다양하게 추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을 해석하는 선행 인지과정이 고통감내력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귀인 양상의 차이가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요한 관계 내에서 짐이 되는 느낌의 지각은 삶을 무의미하게 지각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신체적으로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고통에 대한 감내력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인지적 신체적 기제는 자기에 해를 가하고 실패를 유도하는 방식의 다양한 위험 행동이나 자기패배적 행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자기패배적 행동 양상을 보이는 개인에게 대인관계에서의 주요한 좌절감에서 야기된 절망감과 죄책감을 다루는 과정과 개입이 보다 근원적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서 야기된 좌절감의 원인을 내부 귀인, 즉 자기 비난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통합하여 조망하고 귀인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조작의 한계로 개개인의 주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 내에서의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영

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깝지 않은 관계와 의미 있는 관계 모두에서 관계의 좌절과 부정적 행동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Twenge et al., 2002)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에서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이 갖는 함의를 추론할 수 있겠다.

둘째, 참가자의 귀인 경향성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점이다. 좌절된 소속감의 모호한 패러다임에서 내적 귀인 경향자는 우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외적 귀인 경향자는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귀인 양식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유대감과 효능감의 좌절이 자기패배적 행동 위험을 증가시키는 인지적, 신체적 기제를 살펴보는데 그쳤다. 즉, 자기패배적 행동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중증 우울이나 기타 임상적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한 대학생이었다. 따라서 임상군 및 만성화된 대인관계에서 좌절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요한 대인관계 좌절이 다양한 자기패배적 행동을 연결하는 삶에 대한 무의미성 지각과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 경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인관계 욕구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각각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인과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 내에서 짐이 되는 느낌이 현재 삶의 무의미성을 증가시키고 목적성을 약화시키는 경로

와 신체적 고통감내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한편, 좌절된 소속감(사회적 배제)에서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는 귀인의 방향에 따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인관계 욕구 좌절이 이끄는 부정적 메커니즘과 인지적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상담 및 임상 장면에서 대인관계 욕구가 좌절되어 다양한 자기패배적 행동 양상을 보이는 개인이 반복되는 자기패배적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성연 (2013).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의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근혜 (2015).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개인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IPTS)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동희 (2013). 청소년의 애착, 대인관계 특성, 자살생각과의 관계 :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하정미, 설연옥, 좌문경 (2010).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223-246.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1997). Esteem threat, self-regulatory breakdown, and emotional distress as factors in self-defeating behavior.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45-174.
- Baumeister, R. F., & Scher, S. J. (1988). Self-defeating behavior patterns among normal individuals: Review and analysis of common self-destructive tendencies. *Psychological Bulletin, 104*(1), 3-22.
- Buckley, K. E., Winkel, R. E., & Leary, M. R. (2004).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14-28.
- Bernstein, M. J., & Claypool, H. M. (2012). Social exclusion and pain sensitivity: Why exclusion sometimes hurts and sometimes numb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2), 185-196.
- Bushman, B. J.,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27-1040.
- Cho, M. J., & Kim, K. H. (1998). Use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 in Korea.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6*(5), 304-310.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4), 608.
- DeWall, C. N., & Baumeister, R. F. (2006). Alone but feeling no pain: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hysical pain tolerance and pain threshold, affective forecasting, and interpers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15.
- DeWall, C. N., Twenge, J. M., Gitter, S. A., & Baumeister, R. F. (2009).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he role of hostile cognition in shaping aggress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1), 45-59.
- Eisenberger, N. I., & Lieberman, M. D. (2004). Why rejection hurts: A common neural alarm system for physical and social pai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8*(7), 294-300.
- Eisenberger, N. I., Lie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5643), 290-292.
- Franklin, J. C., Aaron, R. V., Arthur, M. S., Shorkey, S. P., & Prinstein, M. J. (2012). Nonsuicidal self-injury and diminished pain perception: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Comprehensive Psychiatry, 53*(6), 691-700.
- Hooley, J. M., Ho, D. T., Slater, J., & Lockshin, A. (2010). Pain percept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a laboratory investigation.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3), 170-179.
- Joiner, T. E. (2009).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iner, T. E., Ribeiro, J. D., & Silva, C. (2012). Nonsuicidal self-injury, suicidal behavior, and their co-occurrence as viewed through the lens of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5), 342-347.
- Joiner Jr, T. E., Van Orden, K. A., Witte, T. K., Selby, E. A., Ribeiro, J. D., Lewis, R., & Rudd, M. D. (2009). Main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wo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3), 634-646.

- Kanarek, R. B., & Carrington, C. (2004). Sucrose consumption enhances the analgesic effects of cigarette smoking in male and female smokers. *Psychopharmacology, 173*(1-2), 57-63.
- Kowal, J., Wilson, K. G., McWilliams, L. A., Péloquin, K., & Duong, D. (2012). Self-perceived burden in chronic pain: relevance, prevalence, and predictors. *Pain, 153*(8), 1735-1741.
- Krause, N. (2004). Stressors arising in highly valued roles, meaning in life, and the physical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B*(5), S287-S297.
- Kunzendorf, R. G., & McGuire, D. (1994). *Depression: The reality of 'no meaning' versus the delusion of 'negative meaning.'* Unpublished manuscript, Lowell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Major, B., Quinton, W. J., & Schmader, T. (2003).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mpact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ituational ambigu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3), 220-231.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55.
- Mendes, W. B., Major, B., McCoy, S., & Blascovich, J. (2008). How attributional ambiguity shapes physiological and emotional responses to social rejection and accep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2), 278-291.
- Mercer, M. E., & Holder, M. D. (1997). Antinociceptive effects of palatable sweet ingesta on human responsivity to pressure pain. *Physiology and Behavior, 61*(2), 311-318.
- Murray, H. (1938). *Exploration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iers, G., & Singer, M. B. (1971). *Shame and guilt: A psychoanalytic and a cultural study*. New York: Norton.
- Ribeiro, J. D., & Joiner, T. E. (2009). The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12), 1291-1299.
- Seligman, M. E., & Maier, S. F. (1967). Failure to escape traumatic shock.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4*(1), 1-9.
- Shneidman, E. S. (1996). *The suicidal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illman, T. F., & Baumeister, R. F. (2009). Uncertainty, belongingness, and four needs for meaning. *Psychological Inquiry, 20*(4), 249-251.
- Stillman, T. F., Baumeister, R. F., Lambert, N. M., Crescioni, A. W., DeWall, C. N., & Fincham, F. D. (2009). Alone and without purpose: Life loses meaning following social ex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686-694.
- Stroebe, W., Stroebe, M., Abakoumkin, G., & Schut, H. (1996). The role of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in adjustment to loss: A test of attachment versus stres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41-1249.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606-615.
-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Jr, T. E. (2012).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97.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J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72-83.
- Vancouver, J. B., Thompson, C. M., & Williams, A. A. (2001). The changing signs i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personal goals,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4), 605-620.
- Vorauer, J. D., Cameron, J. J., Holmes, J. G., & Pearce, D. G. (2003). Invisible overtures: Fears of rejection and the signal amplification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4), 793-812.
- Waesche, M. C. (2012). *Alone, drunk and feeling no pain: The effect of thwarted belongingness and alcohol on self-inflicted pain tolera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State, Florida, USA.
- Williams, K. D. (1997). Social ostracism. In R. M. Kowalski(Ed.), *Aversive interpersonal behaviors* (pp. 133-170). New York : Springer.
- Williams, K. D. (2002).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New York : Guilford Press.
- Williams, K. D., & Jarvis, B. (2006). Cyberball: A program for use in research on interpersonal ostracism and accepta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38(1), 174-180.
- Zadro, L., Boland, C., & Richardson, R. (2006). How long does it last? The persistence of the effects of ostracism in the socially anxiou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5), 692-697.
- Zadro, L., Williams, K. D., & Richardson, R. (2004). How low can you go? Ostracism by a computer is sufficient to lower self-reported levels of belonging, control, self-esteem, and meaningful exis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560-567.

원고접수일: 2016년 1월 19일

논문심사일: 2016년 2월 20일

게재결정일: 2016년 10월 1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6. Vol. 21, No. 4, 877 - 893

The Effects of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on Perceived Sense of No Meaning and Purpose About Life and Physical Pain Tolerance

Young-Sil Kwon, Hye-Young Lee, Seung-Cheol Kim,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responses. Therefore, we developed a paradigm to induce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and tested its validity. We postulated current perceived sense of no meaning and purpose about life as a psychological dimension and pain tolerance as a physical dimension. Data was collected from 71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who did not meet exclusion criteria. Current perceived sense of no meaning and purpose about life and pain tolerance were assessed by inducing immediate frustration with a goal of creating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nipulation to induce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had validity.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the group with perceived burdensomeness had significantly more of an increase in their current perceived sense of no meaning about life and significantly more of a decrease in sense of purpose about life. An effect of interaction was found between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on physical pain tolerance.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considering the many self-defeating behaviors that individual's experiencing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deal with.

Keywords: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social exclusion), perceived sense of no meaning and purpose about life, physical pain tolerance